

애틀랜타 올림픽 금메달의 어머니들

“金보다 빛난 모정불심”



레슬링 심권호 어머니 이화순 씨

애틀랜타 올림픽의 초입부터 금메달의 영광을 일찍이 심권호, 전기영, 조민선 등 3명의 불자선수 뒤에는 일심으로 그들의 선전을 기원한 어머니의 지극한 불심이 밑받침이 됐다. <관련기사 14면>

레슬링 심권호선수의 어머니 이화순씨는 성남 법통사서 매일 새벽 불공을 드리며 아들이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 이길 수 있도록 기원했다. 유도 잔

기영선수의 어머니 김순희씨 역시 아들의 결승 직전까지 청주 용화사에서 애틀랜타에 있는 아들을 위해 기원한 끝에 아들의 승전보를 접했다. 김순희씨는 “이 국만리 미국방에서 함께 경기를 하고 있는 아들을 TV로 지켜 보기가 안타까워 법당의 부처님께 기원을 올렸다”고

고. 여자유도 조민선선수의 어머니 최도임씨 또한 서울 송파구 해원로교원을 매일 출퇴근하다시피 하며 딸의 우승을 기원했는데 “천수경을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했다. 딸의 유도 인생 12년이 헛되지 않도록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는 길은 오직 부처님 전에 기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 어머니들은 한결같이 “마음이 불안하고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때면 항상 법당을 찾아 마음을 안정시켜라”고 아이들에게 일러주었다며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피로 이뤄질 수 있다”고 금메달의 기쁨을 불전에 회향했다. (이은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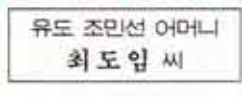
성남 법통사서 매일 새벽 불공 심권호 어머니

TV보기 안타까워 법당서 아들 응원 전기영 어머니



유도 전기영 어머니 김순희 씨

절서 천수경 외며 딸 우승기원 조민선 어머니



유도 조민선 어머니 최도임 씨

죽음을 이긴 어머니

주부신행담

부

처님의 가피로 병을 털고 일어날 수 있다고 힘주어 말씀드렸다. 병양에서는 난말을 넘기기가 힘들겠다고 까무러칠 충격을 선언했지만, 믿을수도 믿기지 않거나와 차마, 차마 남아있는 삶의 일정을 누구의 입으로도 깨낼 수가 없었다. 다만, 어머니 스스로 당신의 내일을 가능치고 계실 뿐이었다.

그후 어머니는 고분고분한 아이처럼 약이며 식이요법에 열심으로 매달리시며 감사할 만큼 확실한 투병생활을 하셨다. 병양에서는 불과 2, 3개월을 넘기기가 힘들겠다고 했지만 누구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더구나, 복부의 부기도 눈에 띄게 가리었고 힘달든 얼굴빛에 차츰 활색이 찾아드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기적은 멀리 있는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서서히 약속이나 한것처럼 품고 있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어머니의 맑은 기운을 잃고 힘없이 떨리는 앞다림은 눈꺼풀까지 감겨있는 날이 더욱 잦아졌지만 잠든 어머니의 모습은 그야말로 평화 그 이름의 본디 모습이였다. 작은 기적에 대하여 모두들 감사했다.

그러나 종풍전의 고요가 더욱 두려운 것처럼 일말의 불길함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입에서 패어낸 말이 세상이 활짝와 서로가 눈치만 살필뿐, 상대를 거들 살피고 확인하는 횡수가 늘어나는 것에서 서로의 심정을 헤아리고 있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자태는 실로 열반에 든 수도승의 그것을 생각해 했다.

신내쪽에 홀로 다소곳이 기대앉아 머리맡에 준비된 물수건으로 얼굴 닦으시는 모습을 통해보던 우리는 죽음을 삼켜야 했다. 불수건을 집어들기 위해 말을 뱉는 동작에서부터 그 물수건이 제자리로 되돌려지기까지의 과정은 마치 영화기법의 슬로우 모션처럼 후들거렸다. 끝이 너무 더디게, 너무 힘겨워하



그림·이준석

형상 벗는일이 고통아님을 보이셨으니 따로 극락왕생을 축원할 이유가 없었다

시에 필사적인 그 행위가 경건하다 못해 차라리 무모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무엇이였을까.

어머니가 기어코 기대 앉아서라도 치루고 싶었을 의식은

어 분신처럼 목에 걸고 있는 열주를 휘청이는 손으로 쓰다듬으셨다.

어머니 머리맡에는 나무동지 모양을 한 열주통이 있었다. 그 안에 크고 작은 열주가 수북하게 담겨져 어머니의 손에서 쉼새처럼 길들여진 당신의 유일한 벗인 것이다.

간헐적으로 혼미상태를 빠져나오면 어감없이 열주부터 쟁겨 들었다.

알았을 힘겹게 짊어지며 무엇을 소망 하셨을까?

안타깝게 육신을 기대앉히고 열주알을 돌리는 어머니의 신상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당신 스스로 웃을 갈아입고, 몇 가닥 남아 있는 머리카락을 손질기로 좁게 다듬고, 등을 세워 꽃꽂이 않은 자세로 잠시동안 눈을 감고 말이 없으셨다. 그러한 후에 아이처럼 깨끗하게 웃으셨다.

어머니 모습을 보았다. 혁, 숨이 막혔다. 내 어머니 모습은 불치의 양으로 고통스레 돌아가신 불행한 모습이 아니었다.

맑고 고요한 광음이 얼굴 가득 번져 있어 마치 기분좋은 몸중에 취해 있는 듯이 보였다. 입가에 미소를 고스란히 남겨 놓은채로.

그 순간 나는 이미 어떤 이름인지 모르는 보살님이 되신 어머니를 보았다.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가는 실례일이 라는 것을, 형상을 벗고 '몸'을 통해 갈 나서는 것이 그토록 황기롭고 흐릿할 수 있음을, 그러한 것임을 믿고 있었다.

굳이 극락왕생을 따로 축원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이미 보살이 되신 어머니를 보며 흘리는 감사의 눈물이 내내에 흘러주신 운기나는 열주앞에 부딪쳐 부디 영원할 어머니의 모습처럼 내 가슴에 스며들었다.

신경희 (수원시 승주동)

METTASUTTA metta (베달리아) 자비로운 mettassutta(자비로운 경전) mettacitta(자비로운 마음)

Whatever is to be done by one who is skillful in seeking (what is) good, having attained that tranquil state (of Nibbana): Let him be able and upright and conscientious and of soft speech, gentle, and not proud.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안한 경지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말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운데, 잘난 체하지 말아야 한다.

And contented and easily supported and having few cares, unburdened and with his sense calmed and wise, not arrogant, without (showing) greediness (when going his round) in families.

만족할 줄은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잡일을 줄이고 생활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게 총명하며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남의 집에 가셔도 탐욕을 부리지 않는 다.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And let him not do anything mean for which others who are wise might reprove (him); may all things be happy and secure, may they be happy-minded.

다른 식자들로부터 비난을 살 만한 비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서는 안된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태평하라. 안락하라.

Whatever living beings there are, either feeble or strong, all either long or great, middled-sized, short, small or large, 집에 맡겨나 강하고 곧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큰 것이건 중간이건, 짧고 가는 것이건, 또는 조잡하고 거대한 것이건간에 어떤 생물이든 존중하는 이유가 있다.

- tranquil (a) [마음 등] 차분한, 평화로운
upright (a) 정직한, 고결한 (= conscientious)
arrogant (a) 거만한, 거드름 부리는
reprove (v) 비난하다, 책망하다

오종욱 기자

1996 문학의 해 **해외불교문화 다이제스트**

히말라야의 새 ① 루디야드 키틀링 작

원주민들은 라호르 박물관이라고 부르지만 실제의 이름은 아제브 그 헤르였다. 그것은 경이의 집이란 뜻이었다. 킵은 이 박물관의 언저리를 돌며 먹을 것도 구하고 잠도 자고 말청도 피우는 영국계 소년이고 그의 출생에 대한 내력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의 친어머니는 영국군 대령의 집에서 일하다가 아일랜드 연대의 젊은 상사와 결혼했고 상사는 신도령장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으로 살았는데 연대는 그를 인도에 보내게 귀국해 버렸다. 상사는 아내가 플라타르 죽은 이후 주정뱅이가 되었고 아편쟁이 여자를 만나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 킵은 어린나이에 들은 아버지의 얘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 말은 킵의



그림·심민섭

삼에 대한 아버지의 축복이기도 했다. 킵은 아버지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해. 초췌한 킵의 붉은 황소를 신으로 떠받드는 9백명의 최상급 악령들이 킵을 수행할거야' 그 지역에서 킵은 '천세계의 꼬마친구'라는 별명으로 통했다. 어느날 킵은 티벳에서 왔다는 붉은 라마승과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다.

그 라마승은 라호르 박물관에 들러 무수한 유물들을 보며 경탄의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노승은 박물관장도 오래동안 얘기를 나누고 나왔다. 노승과 킵은 두 사람의 만남을 서로를 위한 필연이라고 믿었다. 두사람은 여행을 떠났다. 아니 노승의 여행에 킵이 따라 붙은 것

김과 라마승은 여행을 떠났다 '붉은 황소'와 '신비의 강'을 찾아서...

이다. 노승은 재빠르고 영리한 킵이 자신의 재주보다 다가왔음을 기쁘게 생각했다. 킵은 이 지겨운 곳을 떠나 여행한다는 것에 대한 모험심과 노승을 보살려 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발걸음을 떼었다.

그러나 사실 두 사람에게서 각자의 목적이 있었다. 노승은 '신비의 강'을 찾아 여행하고 있었다. 신비의 강은 석가도니 부처님이 화상을 쓰자 그 화상이 떨어졌던 강이 생겨 그 강물에서 온갖 축복이 흘러넘친다는 강이었다. 그리고 킵은 아버지가 말

한 푸른 물관의 붉은 황소를 찾기 위해 노승과의 여행에 동참할 한 것이다. 그들은 떠나기 전날 밤 킵과 돈을 얻기위해 마호브에게 갔다. 마호브는 편찮지만 최고의 말 증개상이었다. 그리고 그는 인도

축랑국의 비밀정보 요원이기도 했다. 마호브는 킵에게 음달라에 있는 한 장교에게 그가 관 말의 계보가 적힌 종이쪽지를 전달해 달라고 했고 돈도 주었다. 물론 그 말의 계보는 정보로서였다. 킵과 라마승은 새벽길을 도와 기차역으로 갔다.

작가소개 인도 뭍메이에서 태어난 영국 작가이다. 영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20대에 다시 인도로 가 7년간 기자생활을 했으며 소설 시 스키치에 능수 했다. 영국으로 돌아와 '침묵의 강' '히말라야의 새(원제 킵)'를 발표해 세계적인 작가되었다. 영국 작가로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격조높은 작품·감동적인 영상-불교TV영상물

불교TV 영상물은 한잔의 맑은 차처럼 山寺의 향음이 그윽합니다.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시리즈 제2집 5선 출시

- 1 출가 새로운 탄생 수계신설과 명사교회의 대표적 가람, 동부총림(東部叢林) 풍도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수행자들의 지엄한 구도정신을 담은 작품. 한국불교만이 간직한 독특한 수행체제와 과정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상이 펼쳐진다.
2 영상포럼 내원사 한국의 대표적 비구니선원으로 널리 알려진 내원사의 아름다운 명상사. 절벽된 카에라양굴에 포착된 내원사의 하루는 자연속에 동화되어 생명이 공성이 되어버린 산사의 모습 그대로이다.
3 산중편지 독재의 말길이 닿지 않는 산사의 비경과 풍도(風道)를 구하는 비경의 수행자들이 보내는 산중편지. 자신의 방식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내본 스님의 신념이 담긴 산사의 비경과 함께 울려지듯 펼쳐진다.
4 적멸보궁을 찾아 지명보궁(智命寶宮)은 교조(敎祖)적기보니부처님의 진신사리(眞身舍利)를 봉안한 사찰 당주(堂主)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불자들의 순례지이자, 기도처로서 가장 신봉되고 있는 절지인 3대 적멸보궁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5 산사의 향음·만동만화공양법회 속세의 산·진·치에서 벗어나 고고한 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산사에는 언제나 맑기로운 아름다움이 있다. 그곳은 또한 비껴갈 수 없는 현대인의 삶을 성찰하는 정갈해져 가는 곳이다. 불기2500년 부처님오신날 풍속특집 만동만화공양법회는 육방공양사의 공제법승을 복원한 것이다.

VHS·5개 1SET/ 소비자가:110,000원 (VAT포함)



btn 불교 TV 영상포교사업단 TEL.(02)3272-0781~5/706-3502-5

·영국산 풍도사 금강계단 석불부도